

# 대구 주보

예수 부활 대축일 2017. 4. 16.(가해) 제2047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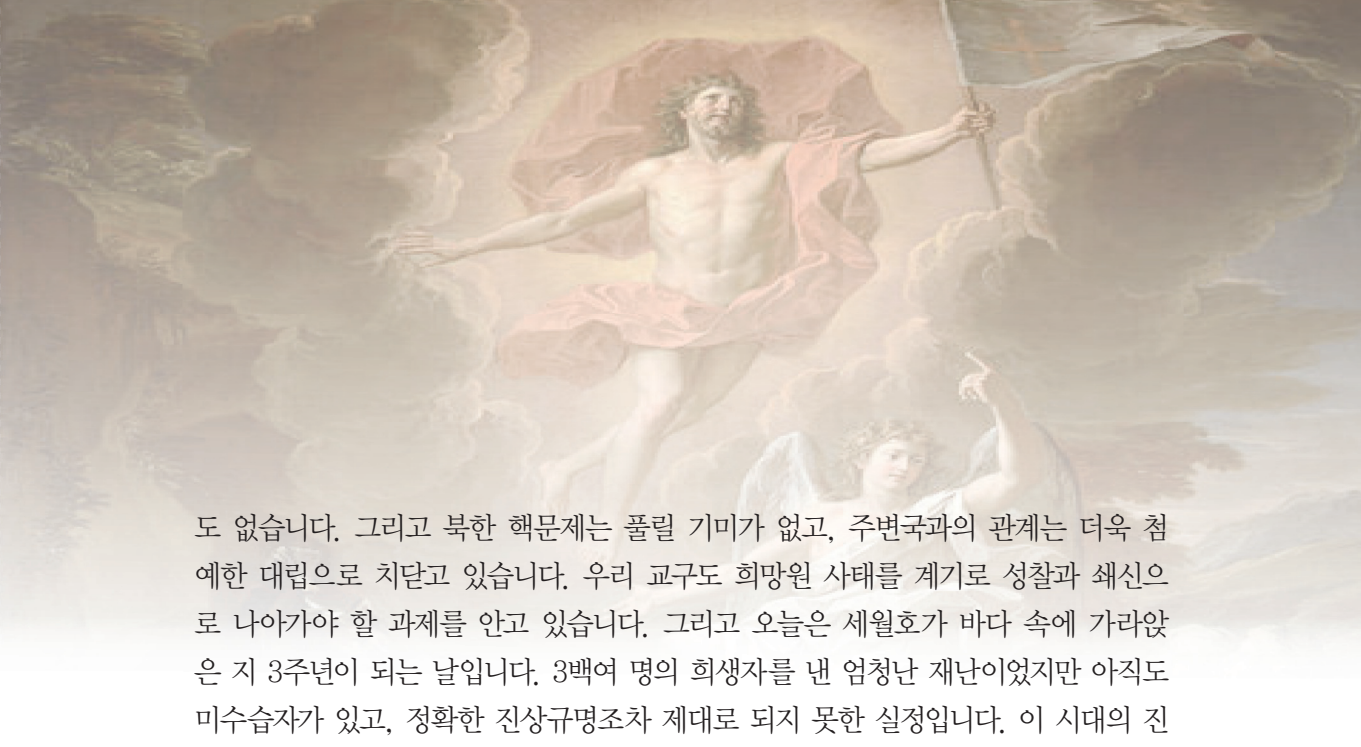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어 고통과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수난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막을 내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되었고,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나?”

부활 성야 미사 때 마태오가 전하는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찬 그들에게 다가가시어 평화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최근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지난 몇 달 간 촛불과 태극기로 뒤덮인 광장에서 힘겹게 민주주의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인해 탄핵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정치가 이러하니 경제 상황은 말할 것



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고,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도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성찰과 쇄신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가 바다 속에 가라앉은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백여 명의 희생자를 낸 엄청난 재난이었지만 아직도 미수습자가 있고, 정확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봄은 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어린 새 생명이 싹을 틔웠습니다. 차디찬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도 바다 위로 들어 올려져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는 밝혀지고 나라가 안정될 것을 소망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도움으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쇄신을 향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험겨운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희망이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온갖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잘못과 낡은 악습과 어두운 절망은 모두 무덤 속에 묻어 두고 희망 가득한 새 삶으로 부활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2017년 4월 16일 예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김 현기 타대오

## ‘꿈&CUM(함께)’을 개관하며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대안교육담당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는 지난 2월 대구 남구 봉덕동에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옛 ‘ME 만남의 집’ 건물을 아이들 정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새 터전으로서의 ‘꿈&CUM(함께)’을 새로이 오픈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꿈트리’는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 교육을 위한 맘 편한 자리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계속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사회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과거의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를 운영하였다면, 지금의 교회는 제도 교육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황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과도하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 또한 예외가 아니며, 교육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인 원칙만 가지게 되는 근본주의적 교육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황께서는 사제 시절 아르헨티나에서 수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편생활을 하셨던 분이로서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꿈 못자리’와 ‘꿈트리’를 통하여 달라지고 있는 많은 청소년을 보게 되고, 이제 교육의 틀 또한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교육의 제도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빈틈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교육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듯이, 이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황께서는 또한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듣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양의 고전인 『주역』에도, “비아구동몽, 동몽구아(匪我求童蒙, 童蒙求我)”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싹수가 노란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싹수가 노란 그 아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 “내가 아이들에게 배우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면 그 는 완전히 다른 교사가 된다고 합니다(김재형, 『시로 읽는 주역』 속에서).

새로 만들어진 ‘꿈&CUM(함께)’ 공간은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하여 명석을 깔아 놓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새로운 울타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 자유롭게 다양하게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

※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CUM’ 문의 : 053)474-4840

## 부활의 표징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부활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원천이 되어(1코린 15,20~22 참조)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한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어떻게 신앙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표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표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마태 28,1-8; 마르 16,1-8; 루카 24,1-12; 요한 20,1-10)’의 발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 예수님의 시신을 찢던 아마포와 얼굴 수건이 무덤 한 곳에 개켜져 있는 것(요한 20,6-7 참조)이 부활을 유추할 수 있는 표지들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실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루카 24,5~6 참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여자들이었는데 당시 법에 따르면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빈 무덤을 보았던 요한 사도에 관해 그가 “보고 믿었다.”(요한 20,8)라고 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발

현)는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1코린 15,6~8 참조).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은 그분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굳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나타내시므로써 표징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스도교에 입교함으로써 예수님 부활의 표징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 후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한꺼번에 무려 153마리나 잡게 했던 기적(요한 21,11 참조)을 통해 부활하신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시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물리적 역사적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 사건이며 신앙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표징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

## 부활 성야

- ▲ 제1독서 [창세 1,1-2,2]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 제2독서 [창세 22,1-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 ▲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 제3독서 [탈출 14,15-15,1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 ▲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 제4독서 [이사 54,5-14]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없이 여기신다.〉
- ▲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 제5독서 [이사 55,1-11]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 ▲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제6독서 [바룩 3,9-15.32-4,4]  
〈주님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 ▲ 화답송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제7독서 [에제 36,16-17ㄱ.18-28]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 ▲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 서간 [로마 6,3-11]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 ▲ 복음 [마태 28,1-10]  
〈예수님께서서는 되살아나셨고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입니다.〉
- ▲ 영성체송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 예수 부활 대축일

- ▲ 입당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 제1독서 [사도 10,34ㄱ.37ㄴ-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제2독서 [콜로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시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월 19일(수)은  
(故) 이종홍(그리산도) 몬시뇰  
선종 2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4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23(일) 14:00  
유의: 부활 대축일 관계로 날짜 변경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4.25(화) 7:00  
장소: 거제도 지세포성지  
출발: 대봉성당  
문의: (010)6560-3086

가톨릭여성교육관 꽃꽂이 전시회

기간: 4.21(금)~23(일) / 개막식: 11: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지도: 초월꽃예술중앙회장 시병숙  
출품: 제대꽃꽂이꽃꽂이지도자반 회원  
문의: 254-6115 / (010)3802-2107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5.21(일), 서울교구 당고개성지  
신청: 4.19(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교육 | 모집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4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4.22(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남산동)

주제: 사랑의 길 위에서  
강사: 이해인(클라우드) 수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 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강사: 4월\_천지만(베드로) 신부  
5월\_윤원진(비안네)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심리상담센터

영역: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모래놀이, 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학습코칭  
문의: (010)4096-2296 / 660-5542

가톨릭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프란치스카눔 문인화(서예, 사군자) 모집

개강: 5월부터 화 19:00 / 수 10:30  
장소: 프란치스카눔  
강사: 진동길(마리오) 수사 신부  
준비물: 문방사우(선착순)  
문의: (010)9100-4114

채용 | 안내

가두선교단 여사무장 채용

자격: 컴퓨터활용(엑셀, 파워포인트)에  
능숙한 자 / 마감: 4.25(화)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문의: (사)가두선교단, 781-6100

성요셉요양병원 입원 상담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말기암 전문요양  
매일미사와 함께 영성치료  
문의: 615-487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일자: 7월 30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발아플랜**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피부질환 | 아토피 | 알레르기 | 사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콤빌딩 3층 (구, 달성군청)  
1호선 침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곽은석(더모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철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낙지장어**  
낙지철판볶음 / 연포탕  
산이나고석쇠구이 / 장어매운탕  
40인 단체방 어린이놀이방 완비  
T.053)941-7008 정창훈(안드레아)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

아토피 · 예민피부 특화병원  
www.dalsungskin.com  
**달성피부과·성형외과**  
아토피 체질치료/아토피 피부관리/레이저  
민감성피부 성형수술/비만크리닉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곽연신클리닉**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